

실버농업의 유형분류 및 적합작목 탐색

Classification of Silver Farming Types and Investigation of Proper Crop for Silver Farmers

강경하* · 윤순덕** · 강진구***

Kyeong Ha Kang · Soon Duck Yoon · Jin Ku Kang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lassify the silver farming types and to investigate proper crops for silver farmers. Data were collected from 408 farmers returned from the urban area. Descriptive statistics were employed using SPSS/PC windows program. After then, researchers discussed the silver farming patterns and their proper crops, and tried to analyze the silver farming model.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The farming aims of retirees, urban residents as well as farmers returned from the urban area were various from hobby/leisure to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Fourteen types of silver farming were classified by farming aim and residential area of retirees. Retirees in the hobby/leisure-oriented silver farming type can select and enjoy the various plants, animals, and insects as well as crops due to their small scale.

Silver farmers in the self-sufficiency type may select crops for their food. Income-oriented silver farmers may have difficulties in choosing the proper crop. They must consider their income needs, health status and field location.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연구관. e-mail: kangkhj@rda.go.kr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연구사. email: ysd@rda.go.kr

***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연구관. e-mail: kangjk@rda.go.kr

Profit-oriented silver farmers with venture mind can have some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agricultural sectors in spite of severe competition. As the aged silver farmers have poor health, they must keep work safety rules, use the proper work-aids, and utilize the labor-saving farming system.

주요어(Key words): 실버농업(Silver farming), 적합작목(Proper Crop), 은퇴자(Retiree), 은퇴농(Silver farmer)

1. 서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00년에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의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고령인력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노후보장 및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연금·사회부조 등 공공지출의 확대로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은미, 2002). 특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그 파급효과를 압축적으로 경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현상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대비가 시급한데 농업부문의 기여 가능성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가 하면 농촌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00년 14.7%, 2005년 18.6%로 고령화가 도시지역에 비해 훨씬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통계청, 2006a). 또한 2006년 현재, 농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0.8%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7).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인구비율은 1990년 25.9%, 2000년 20%, 2005년에는 18.5%까

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추세는 과연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평균수명의 증가로 건강한 노년기가 늘어나면서, 은퇴 후 30여년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건강하고 가치 있게 사느냐가 노년기 삶의 질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최근 도시의 과밀화, 국민소득 향상, 그리고 가치관 전환 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도시민의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동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던 노인들도 과거에 비해 노후를 즐기기에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보이며 경제적 이유 보다는 건강이나 심리적인 이유로 노년기에도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추세는 생산적 노인복지 실현을 통한 노인복지제정 부담 완화, 농촌의 과소화 문제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버농업의 개념을 도시 장년층이 은퇴 후 농업 농촌에서 새로운 (소)일거리를 즐기며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농업으로 정의하며, 연구의 목적은 첫째 실버농업인의 영농의향과 선호작목을 조사하고, 둘째 실버농업의 유형을 분류하고, 셋째, 실버농업에 적합한 작목을 탐색하고, 영농체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실버농업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2.1. 실버농업의 개념

실버농업의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하였던 류강선(2003)은 실버농업은

사회생활을 마친 장·노년층이 취미로 하는 영농의 총칭이라고 하면서 그에 알맞은 작목으로서 버섯, 양봉, 양잠, 곤충, 분재와 약초 등의 재배와 사육을 들며 실버농업 테마타운 모델을 제안하였다. 1990년대 이후 전개된 실버산업 논의, 즉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증가하는 구매력 있는 노년층을 고객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실버산업(최혜경·정순희, 2001)과는 초점이 다르고, 또한 실버농업의 기반조성, 작부계획, 작업방법, 재배방법 등을 논의한 丸杉孝之助(1990)과도 차이가 있는 제안이다.

이를 계기로 2004년에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수립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에 농업부문이 요양, 주거, 기기, 금융, 여가, 정보, 한방산업과 함께 8개 부문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었다. 장현숙 등(2005)은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선진외국의 실태 및 지원 법·제도 비교 고찰, 추진전략을 벤치마킹하고 부문별 핵심과제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 법·제도 정비 등의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는데, 농업부문의 핵심과제로서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개발 지원과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지원 등 두 가지를 논의하였다. “고령친화...”는 “실버...”의 이미지를 고령자에게 보다 친숙한 이미지로 나타내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농업은 고령친화농업보다 빠른 의미전달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버농업의 개념을 도시 장년층이 은퇴 후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소)일거리를 즐기며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농업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실버농업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2015년 무렵부터의 고령사회 현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2.2. 은퇴자의 농촌이주 가능성

장수시대가 도래하면서 도시 퇴직자의 농촌정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김동일, 2001), 향후 10~20년 후에 노년층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농촌이주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특성의 사람들이 이주의사가 있을 것인가?

조사대상 범위 및 측정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도시 성인남녀 과반수 이상은 퇴직 후 농촌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안동만, 1996; 오세익, 2004; 송미령 등, 2006). 도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윤순덕 등 4인(2005)은 이들의 58.2%가 은퇴 후 농촌 이주의사가 있었으며 이주희망 이유로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기 위해, 남은 인생을 농촌에서 텃밭 등을 가꾸며 살기 위해'가 다수를 차지한 반면, '도시소득 미흡, 직장상의 이유'는 낮았다고 하였다. 즉 장년층 도시민의 은퇴 후 농촌이주 의사에는 도시의 배출요인보다는 농촌의 환경적 흡인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이들은 남성일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농촌거주경험이 있고 농업 농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농촌이주의사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는 강대구 등(2006)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었다. 이광석(1997)의 연구는 어린시절을 농촌에서 지낸 사람, 노후연금을 불입하는 사람일 경우 농촌을 장래의 주거지로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은퇴 후 약 25%의 인구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전체 3,141개 중 440개의 County를 Retirement Destination으로 정하여 도시지역에서 은퇴한 후 농촌으로 이주 장려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농업사회보장기구에서 1986년 노후에 농촌생활을 희망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 집합주거단지인 Marpa(Maison d'Accueil

Rurale pour Personnes Agees)를 설치하여, 현재 115개가 환경여건이 좋은 농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윤순덕 등, 2006).

2.3. 실버농업의 가능성

노년기 영농활동은 우리나라 백세인 조사에서 직업이 있는 사람의 평균수명이 무직인 사람의 그것보다 14년 길고 백세인의 대부분이 가장 오래 해 온 일이 농사일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박상철, 2002) 새로이 주목되었다. 건강장수에 있어 농사일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 취업자의 52.7%가 농림어업에 분포하였으며(통계청, 2005), 농업노동 참여가 남녀노인 모두의 고독감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윤순덕 등, 2004)는 보고들은 노후의 일거리로 농업노동이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농업은 정년 없이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종사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상태나 형편에 따라 영농규모와 노동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건강이나 여가의 필요시에는 자발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가적으로는 노년기 농업노동이 공공부문으로부터 노인의 생계 및 의료복지를 위하여 지출되는 사회복지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순덕 등 3인, 2005).

일본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의 정년귀농 현상이 뚜렷하였으며(內閣府, 2004), 우리나라에서도 1990~1997년 동안 귀농인은 60세 이상이 9.9%, 50대 18.7%였으나, 2004년에는 60세 이상 15.4%, 50대 32.5%로(강대구 등, 2006) 귀농인 가운데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앞으로 고령자 귀농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고령자 가운데 55~64세 연령층의 71.4% 그리고 65~79세 노인의 43.1%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주된 취업희망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와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었다(통계청, 2006b). 고령자에게 실버농업은

상당히 선호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고령인 실버농업인이 소득추구 농업을 시도할 때 주의할 사항이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나 질병 등 농작업재해이다. 김경수 등(2006)의 조사에 의하면 농촌노인들이 “나이 들면서 농사일 하기에 가장 힘든 점”으로 “무거운 것 등 큰 힘 쓰기가 어렵다” 27.6%, “쉽게 지친다” 22.2%, “빨리 작업하기가 어렵다” 17.4%, “불편한 자세를 견디기가 힘들다” 16.6% 등이었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심신기능과 체력이 저하하기 때문이다.

2.4. 도시 은퇴자의 농업 참여 제한요인

실버농업은 극히 최근에 제안되었고, 또한 도시 은퇴자를 농업 농촌으로 유치하는 것을 기본지향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문과 제한점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적인 의문은 실버농업 논의가 농업 농촌의 변화방향과 역행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강경하, 2005). 즉, 이미 고령화가 크게 진전한 농촌에 도시 은퇴자 유치가 바람직한가? 농업경영주의 절반 이상이 60대를 넘어섰고 전업농 경쟁력 강화, 농업구조개선이 시급한데 실버농업 논의는 이러한 정책방향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농촌 인구의 심각한 감소에 대하여는 전술하였고, 이러한 인구감소는 식당, 이발, 가게, 학교 등 다양한 생활편이 서비스업의 쇠퇴를 초래하여 농촌 지역의 공동체 해체를 가져오고 있는 터이다. 최근 비록 연령이 많더라도 혹은 도농교류를 통한 유동인구라 하더라도 농촌인구의 증가가 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데 의견이 합치하고 있음은 실버농업 논의에 긍정적인 측면이다. 윤순덕 등(2007)은 우리나라에서도 은퇴인구 유입이 지역의 도소매업 취업률 증가와 지방세수 증가에 긍정적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시사하였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평균 소득, 평균 규모 등에 기초하여 시행하였던

정책을 반성하고 주업농, 고령농, 취미·부업농 등 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농업인력 공급기반이 취약한 데 비추어 도시총각에 대하여도 농사취업을 권장하기 시작하였다(농림부 등, 2006). 이러한 시책전환이 궤도에 진입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도시생활에서 자본을 축적한 장년층의 농업종사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버농업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데서 크게 진전한 상황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은퇴자의 영농목적에 대한 정부 지원이다. 실버농업 심포지엄이나 교육에 참여하였던 노인들은 은퇴 후 농촌이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실제로는 개별적 농촌이주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다. 다만 농림부의 전원마을 사업처럼 도시민의 농지와 주택 구입 등 취미 여가 또는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농촌에 투자하거나 소규모 영농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도변화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득 또는 이윤을 목적으로 농업 농촌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기왕의 농업인과 차이가 없으며 차별적인 시책개발은 앞으로도 불가하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는 꼭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가이다.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라 도시 농촌의 연속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농업인이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도시에 가정을 꾸리고 출퇴근농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있듯이 은퇴자 역시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농사를 즐기거나 업으로 영위할 수 있다. 직장을 가진 도시민이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보내도록 권장하는 논의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넷째는 실버농업인의 노동 가능량의 문제이다. 노재선 등(2007)은 한국고용정보원(2002; 2003)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실버농업인의 노동시간을 일반농업인의 78% 수준으로 추정하고, 실버농업인은 필요소득에 맞추어 농업노동시간을 조절하고 여가를 즐길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70대 이후부터는 노동시간이 감소하는데 신체기능 저하, 기술력, 숙련도 등이 노동시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농사경험이 부족한 은퇴자의 노동능률은 일반농업인의 70~90% 수준으로 추정되며,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향상될 것이다.

다섯째 은퇴자의 농업기술 부족에 대한 우려이다. 이 연구조사에서 잠재실버농업인(386명)의 38.6%가 은퇴 후 영농할 때 예상하는 어려움으로 농사기술 및 지식 부족을 들었고, 정철영(2000)도 귀농 희망자의 40.9%가 농업기술 부족을 귀농결정시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취미 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은퇴자의 농업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지만 소득 또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은퇴자의 농업에서 농업기술 부족은 큰 경영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기술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소위 친환경농업을 시도하는 귀농인 가운데 경영실패를 경험하는 사례가 있다. 표준영농기술을 보급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중시되어야 하고, 영농을 시도하는 은퇴자로서도 농업기술 또는 경험 부족 때문에 최초 몇 년간 경영실패로 고통 받는 귀농인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버농업을 계획하여야 한다(전국귀농운동본부, 2006).

여섯째 농업의 저 소득성 문제와 더불어 농지, 농기계, 시설 등 초기 자본투자가 많은 것이 애로사항이다. 김성수 등(2004)은 귀농 초기 애로사항으로 농지 및 가축구입 16.3%, 영농자금 조달 30.5% 등 초기투자금 및 경영비 마련문제가 46.8%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특히 소득 또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최신 시설과 농기계 등으로 생력화 작업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이는 더 많은 자본투자를 요구한다. 한편 벼농사의 경우 주요 작업의 위탁기반이 되어 있으나 위탁에 의존할 경우 자가 노동력의 유희화와 경영비 부담증가를 여하히 관리하는가가 중요해진다. 지나치게 수작업에 의존하는 농사를 시도할 경우 자칫

자기 노임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규모 확대 제한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이주 도시 은퇴자의 적응 문제이다. 일부 귀농인들은 농업인과 농촌인의 배타성을 지적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박공주 등(2006)은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수준, 농촌이주 결심계기/준비/자금, 영농 정보에 대한 만족도 등을 분석 보고하였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잠재실버농업인 즉 도시 거주 중장년층의 은퇴 후 영농의향과 실버농업인 즉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미 이주하여 생활하는 귀농인들의 영농실태를 조사 분석하였고, 문헌조사와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하여 실버농업의 유형 분류, 적합작목을 탐색하고 선형계획법과 시산법을 적용하여 실버농업 영농체계 모델을 설정하였다.

먼저 잠재 실버농업인에 대한 조사는 윤순덕 등(2006 참조)에 보고하였고, 실버농업인 즉 귀농인 대상으로 한 영농실태 설문조사는 2004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70개 시·군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귀농인 465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사전에 훈련받은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소속 모니터 49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회수된 질문지 460부 가운데, 연구대상으로 부합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된 52부를 제외하고, 총 40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박공주 등, 2006 참조).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위의 잠재실버농업인 및 귀농인 조사결과, 그 외에 국내외 실버

타운 운영사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버농업연구팀 협의회 3회, 외부 전문가 협의회 3회, 자체 세미나 3회, 현장투어 1회 등 총 10회의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하여 실버농업의 유형 분류 및 적합작목 탐색 등이 이루어졌다. 2005년 5월 30일, “장수사회 농업·농촌의 가치 조명” 심포지엄, 2006년 4월 13일 도농교류 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실버농업에 대한 은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선형계획법과 시산법에 의하여 실버농업 영농체계 모델 개발을 시도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은퇴 후 실버농업인의 영농의향과 선호 작목

은퇴 후 귀농의사를 가진 잠재실버농업인들이 은퇴 후 농촌에서 하고 싶은 일을 알아보기 위하여 농사일, 사회봉사활동, 예술활동, 전문직, 자영업, 서비스업, 단순노무취업 등 7가지 범주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채소·화초재배 등 가벼운 농사일에 가장 강한 의향(77.5%)을 나타내었고 사회봉사활동(70.0%), 예술활동(37.7%), 전문직(37.5%) 순으로 높은 의향을 표시하였으나 자영업(21.9%), 서비스업(20.9%), 단순노무취업(4.0%)은 낮은 의향을 나타내었다(윤순덕 등 2006). 잠재실버농업인들은 은퇴 후 농촌에서 소득과 관련된 일을 선호하기 보다는 육체적으로 가벼운 농사일과 정신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살기를 희망한다고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잠재실버농업인의 퇴직 후 하고 싶은 농사 유형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배추, 무, 상추 같은 채소 재배(73.1%), 야생화 등 정원·화초

가꾸기(64.7%), 과수 재배(34.7%), 된장, 김치 등 전통식품 만들기 (33.8%), 특용작물 재배(28.0%) 등의 농사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곡식 재배, 묘목 기르기, 애완동물 기르기, 가축 기르기, 관광농원 운영하기, 풀벌 기르기, 물고기 기르기, 식당 운영하기 순으로 그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윤순덕 등, 2006). 농사에 도입하고 싶은 작목으로 야생화, 식물원 등은 신선한 것이었고, 영농규모 의향은 취미여가 수준의 매우 작은 규모부터 본격적으로 소득을 추구하는 큰 규모까지 다양하였다. 일이나 농사에 대한 잠재실버농업인의 평균적인 의향 수준이 어떠한건 간에, 즉 소수의 응답이라 하더라도 “하고 싶다”는 의향은 모두 의미 있는 것으로, 실제 은퇴 후 그들이 농촌에서 하는 일은 개인의 경력 연장으로서 값어치를 발휘할 것이고, 농촌의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 클 것이다.

〈표 1〉 귀농 실버농업인의 영농실태(N=408)

구분	논	밭	하우스시설	과수원	축산	기타
응답수(%)	215(52.7)	284(69.6)	72(17.6)	86(21.1)	72(17.6)	31(7.6)
주 작목	쌀	감자, 배추, 고구마, 깨, 고추 등	오이, 토마토 등 야채, 화훼	배, 감, 포도 등	돼지, 닭, 염소, 개, 소, 오리 등	
규모 범위	120~60,000평	5~150,000평	10~6,000평	5~15,000평	1~50,000두/수	2~7,500평
규모 평균	2,829평	1,779평	1,088평	3,059평	1,575두/수	1,002평

〈표 2〉 귀농 실버농업인의 농사 작목 선택 기준(중복 응답)(N=408)

구분	소득이 높을 것 같은 작목으로	농업 관련 기관의 권유에 따라	부모, 친척, 이웃의 권유에 따라	교육을 받았던 작목으로	이전부터 계획했던 작목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키워본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같은 여성농민 보고	작성한 것을	기타
명 (%)	209 (51.2)	57 (14.0)	104 (25.5)	68 (16.7)	107 (26.2)	224 (54.9)	122 (29.9)	84 (20.6)	22 (5.4)	

한편 이미 귀농한 실버농업인의 영농실태를 보면(표 1), 밭농사(69.6%)와 논농사(52.7%)가 많았고 하우스재배(17.6%), 과수원(21.1%), 축산(17.6%) 등의 순이었다. 작목은 쌀을 비롯하여 감자, 오이, 토마토, 화훼, 배, 감, 포도, 돼지, 닭 등 매우 다양하였다. 원자료를 살펴보면 농사 규모는 취미여가 수준의 소규모에 편포하고 있는데, 대규모 전업농도 있었다. 농사작목의 선택기준(표 2)은 “손쉽게 기를 수 있는 것으로”(54.9%)와 “소득이 높을 것 같은 작목으로”(54.2%) 등이었다.

4.2. 실버농업의 유형 분류

은퇴 후의 여생계획 여하에 따라 다르지만, 농업을 선택하거나 농촌이주를 선택하는 은퇴자가 점점 증가할 것이다. 농촌이주 한 경우 취미여가 수준의 농업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농업활동을 하게 될 것이며, 도시에 거주하는 은퇴자에게도 건강유지에 도움 되는 농업활동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도시 은퇴자의 거주지 및 영농목적별로 실버농업 유형을 <표 3>과 같이 분류하였다. 세로축은 도시은퇴자의 거주지를 뜻하는데, 양극단은 도시에 그대로 거주하는 형태와 농촌으로 완전히 이주한 형태가 위치한다. 그 중간에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출퇴근형태, 주중의 일부 또는 주말에만 농촌에서 생활하는 거주형태 등이 있다. 최근 많지 않은 비용으로 환경 좋은 외국에서 싼 물가 혜택을 누리며 지낼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은퇴 후 해외이주를 초빙하는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는데(정동우, 2005) 은퇴이민이 말처럼 편안한 것만은 아니다. 은퇴자의 취향과 여건에 따라 거주지 선택이 가능한데 농촌이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단독 가구형과 단지·마을형으로 굳이 구분하여 보았다.

가로축은 도시은퇴자의 영농목적에 따라 양극단에 소득추구 농업과 취

미·여가 농업이 위치한다. 그 중간에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이 있고, 소득추구 농업은 다시 보충소득을 추구하는 농업과 필요소득보다 많은 돈벌이 즉 비즈니스로서 소득(이윤)을 추구하는 실버농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확 후 기술, 종래 농업 외 영역이라고 간주하였던 분야와 융합한 비즈니스, 농촌어메니티 활용 마케팅 등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농업은 상대적으로 시장마인드가 강한 도시 은퇴자가 비록 극히 소수라 하더라도 우리 농업 농촌에 혁신을 이끌 가능성이 많다.

〈표 3〉 은퇴자의 거주지 및 영농목적별 실버농업 유형 분류

		← 소득추구농업	취미·여가농업 →
↑ 도시 거주		③ 출퇴근농업 -임노동 -전문영농 도우미 -농장경영	① 베란다농업 -원예 -애완동물/곤충 ② 주말농장
농촌 이주 ↓	단독 가구형	④ 농장경영 ⑤ 관광농업	⑧ 전원생활 ⑨ 건강·요양생활
	단지· 마을형	⑥ 주산단지 이주 ⑦ 관광마을 이주	⑩ 전원형 실버농업 테마타운 ⑪ 은퇴농장 ⑫ 도시근교 은퇴마을 ⑬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⑭ 농촌 양로시설 농업

이 두 축을 중심으로 도시은퇴자의 실버농업은 도시거주 취미·여가 농업, 도시거주 소득추구 농업, 농촌이주 소득추구 농업, 농촌이주 취미·여가 농업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은퇴자의 도시거주 취미·여가 농업으로는 베란다농업(원예, 애완동물/곤충)과 주말농장을 분류하였다. 단독주택의 정원이나 실내, 옥상은 물론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훼와 채소 등을 가꾸는 것은 은퇴자의 소일과 건강에 유효하다(오대민 등, 2005). 또한 애완견 등 각종 애완동물과 곤충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쿠바의 도시농업(요시다 타로, 2004)에서처럼 식량의 자급을 추구할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 주변의 조그만 공한지에도 채소를 심어 가꾸는 모습이 관찰되는데 도시 안에서도 은퇴자가 농업 활동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자연친화적인 삶과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고령사회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라 할 것이다.

주말농장은 오래 전부터 대도시 근교에서부터 일반화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의 다차,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 일본의 시민농원을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가족농원'을 제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은퇴자의 도시거주 소득추구 농업은 출퇴근농업으로 임노동, 전문영농도우미, 농장경영 등이 가능하다. 소득은 기술력, 숙련도에 따라 상이하고 특히 농장경영에서는 시장변화 예측과 경영위험 회피를 여하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거주민의 출퇴근농업은 주산단지 인근 도시에 서는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도시 농촌의 연속성을 실감하게 된다.

농촌이주 소득추구 농업으로서 은퇴자가 개별적으로 농장이나 관광농원¹⁾을 경영할 수 있고 주산단지 또는 관광마을에 이주하여 영농조합, 작목반, 마을의 개발위원회 등에서 은퇴자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 등 역량을 발휘하면서 소득추구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벤치농업 논의에서 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시장마인드가 높은 도시 은퇴자는 농업 농촌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농촌이주 취미·여가농업으로는 은퇴자가 전원생활, 요양생활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단지형으로 전원형 실버농업테마타운(담당부처: 농림부), 전업농 은퇴농장(농림부), 도시근교 은퇴마을,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협조), 농촌양로시설(보건복지부) 등을 선택하여 농업을 즐길 수 있다. 단지형 농촌이주 취미·여가농업의 5가지 유형은

1) 이상영 등(2005)은 143개 관광농원을 조사하여 농산물채취/판매/체험형, 숙박형, 위락시설/장소제공형, 음식제공형 등 4가지 테마별로 합리적인 경영모형을 제시하였다.

은퇴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였을 때 적응과정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이주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한 시책사업을 구안한 것인데, 연구수행과정에서 부처별 사업담당자 협의를 통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 추진하고 있다.

4.3. 실버농업 적합작목 탐색

개별 도시 은퇴자에 따라서 연금이나 재산소득 등이 충분하여 추가소득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소득을 추구해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실버농업인의 경영목표를 중심으로 취미여가 또는 전원생활, 자급자족, 소득추구(소득극대화, 이윤추구) 등으로 구분하여 적합작목을 탐색하였다.

4.3.1. 취미여가형 실버농업

연금이나 재산소득이 충분한 도시 은퇴자, 건강생활에 목적을 두는 은퇴자는 소득에 연연하지 않고 취미여가형 실버농업으로 작목을 선택할 수 있다. 소규모로 재배/사양하고 작부체계, 작업체계, 작업강도는 건강수준에 맞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실내는 물론 베란다, 집 주변, 정원, 텃밭에 재배/사양할 수 있다. 동식물의 생리생태에 맞게 재배/사양 하면서 가족의 자연 친화 학습과 소일거리를 즐기고 건강 유지에 도움 받을 수 있다. 화훼류, 채소류는 물론 실내에서 벼를 키우는 기술도 개발되어 있다. 애완견은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이구아나, 열대어, 곤충을 키우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4.3.2. 자급자족형 실버농업

도시 은퇴자는 가족의 자급자족용 식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실버농업을 선택할 수 있다. 영농종사자와 직계 가족이 소비할 농산물의 자급을 위

해 영농활동 하는 것으로서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영농체계 모델을 설정하였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자가 노동력에 의해, 자급자족할 농산물의 종류는 비교적 소비량이 많은 쌀(벼), 콩 등 13개 작물 17개 작목을 전제로 하였다.

분석 자료로 노동시간은 농촌진흥청(2002) “작목별 작업단계별 노동투하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월·순별로 소요노동시간을 산출하였고, 단위면적당 예상 소득 및 수량은 농촌진흥청(2002) 농축산물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실버농업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수량성을 90% 수준으로 하고, 경운, 정지 등 주요 농작업은 위탁하며, 농기계는 경운기 1대를 보유하는 작업체계를 전제로 분석하였다.

목적함수는 소득의 극대화에 두었으며, 이는 자급자족형 경영이라도 기본적으로 농자재를 구매하고 잉여생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경영이 소득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조건은 대상 농산물의 최소생산량, 순별 동원가능 최대노동시간, 동원가능 최대토지면적 등이었다. 대상 농산물의 최소생산량은 영농종사자 및 직계가족 등 20인의 연간 소비량을 설정하였다. 순별 동원가능 최대노동시간은 실버농업인 부부 2인이 무리하지 않는 노동시간(4시간/일/인)을 8일 정도 영농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동원가능 최대토지면적은 0.7ha로 설정하였는데, 이보다 적은 토지에서는 대상 농산물의 최소 생산량 제약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다.

분석결과, 작목별 최적의 재배면적은 <표 4>와 같이 벼 1,174평, 참깨 272평 등이며, 예상 농업소득이 6,430천원으로 분석되었다. 예상 소득은 낮은 편이지만 0.7ha의 토지와 643시간의 노동으로 13작물에 대하여 자급자족을 하고 마늘, 가을배추, 사과, 포도 등은 잉여생산량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별 소요노동시간을 보면 부부 2인 노동력으로 연중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다.

〈표 4〉 은퇴자 가족의 자금자족형 실버농업 영농체계 모델

경지면적 (평)		계					2,100		소요자본 (백만원)		계					94
		논					1,174				농지구입					89
		밭					926				개원·장비					5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소요 노동시간	5	11	22	44	92	95	42	100	114	63	50	5	643			
경영성과																
작목 (작부체계)	규모 (평)	생산량 (kg)	20인 소비 량(kg)	잉여 량 (kg)	작목	규모 (평)	생산량 (kg)	20인 소비 량(kg)	잉여량 (kg)							
벼	1,174	1,740	1,740	-	포도(꺾)	14	90	180	-							
참깨	272	44	44	-	포도(거봉)	32	216		126							
마늘	201	717	128	589	가을배추	279	5,687	504	5,183							
콩(후작)	201	84	168	-	봄배추	14	252	252	-							
콩(단작)	181	84		-	가을무	24	316	316	-							
사과(중)	115	919	180	883	봄무	11	158	158	-							
사과(조)	5	36		-	봄감자	6	44	44	-							
사과(만)	14	108		-	고구마	5	24	24	-							
고추	57	46	46	-												

4.3.3. 보충소득 추구형 실버농업

앞으로 보편화하게 될 국민연금에도 불구하고 보충적인 소득이 필요한 은퇴자의 실버농업 작목으로서는, 이들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안정적 소득이 가능한 작목이어야 한다. 농촌진흥청(2003)의 농산물소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108개 작목 “조수입, 수량, 경영비, 소득”의 표준편차와 변이계수를 분석한 결과, 수량과 소득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작목들은 대부분이 지역적으로 특화한 작목이었다. 따라서 보충소득이 필요한 실버농업인의 작목 선택 기준으로서 수량과 소득 안정성은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농사할 지역을 선정하였

다면 그 지역의 다양한 농업생태를 파악하고 보유자원 조건에 따라 작목을 선택하여야 하고, 특히 관심 있는 작목을 이미 선정하였다면 그 작목에 적합한 입지를 골라야 할 것이다.

은퇴 후 실버농업인에게 필요한 보충소득이 많던 적던 간에 소득추구 농업은 기존 농업인과 동일하게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 자연재해, 농작업재해, 병충해 등의 경영위험에 노출되므로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비용절감과 고품질 다수확 등의 생산성 향상, 판매가격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기존 농업인과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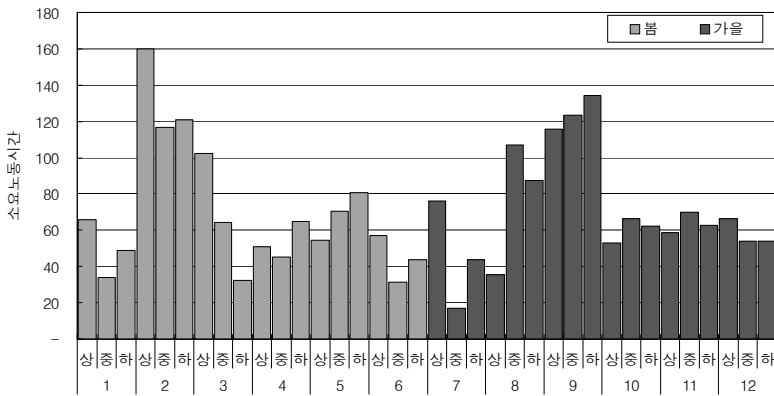
실버농업인에게 필요한 보충소득은 연금이나 재산소득이 없을 경우에 최대가 될 것이다. 즉 농촌 2인 가계비(<http://www.nso.go.kr>) 1,400만원이 필요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산법을 적용하여 첫째 순별 동원가능한 노동시간에 의한 제약규모를 검토하고, 둘째 수익성 및 소요자본을 분석하여 노동 및 자본 한계규모, 가계비충당규모 등을 비교 검토하여 규모를 설정하고, 셋째 작부체계 및 작업체계, 월별 노동 소요시간, 예상 경영수지, 주요 경영기술을 포함하는 영농체계 모델을 분석하였다.

실버농업인은 심신기능과 체력이 저하하는 고령자이므로 노동강도를 줄이는 작부체계, 작업체계로 영농해야 하는데, 이러한 영농체계 모델은 실버농업인의 영농계획 시 참고자료로서 유용할 것이다. 연금/재산소득이 있는 실버농업인은 보다 적은 보충소득 목표에 맞춰 경영규모를 줄임으로써 여가시간을 늘릴 수 있고,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한 실버농업인은 경영규모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 때 노동집중기에는 부득이 고용노동력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느타리버섯을 전문경영하는 실버농업 영농체계 모델 분석 사례를 제시한다.

4.3.3.1. 순별 동원가능노동시간에 의한 느타리버섯 경영 제약규모

시설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순별 동원가능 노동시간은 160시간 (2인×8시간×10일)을 적용(은퇴자,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작업능률은 일반농업인의 80%로 가정)하여 경영 가능한 최대규모를 분석하였고, 농촌진흥청(2002)의 작목별 작업단계별 노동투하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연 2기작의 월·순별로 소요노동시간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경영가능 최대규모는 재배상 면적 기준 207평 수준이었으며, 2월의 입상 및 준비 작업에서 동원가능 노동력에 한계를 보인다(그림 1).



〈그림 1〉 느타리버섯 2기작 노동한계규모의 월·순별 소요노동시간

4.3.3.2. 느타리버섯 경영의 수익성 및 소요자본 검토

예상 수익성은 농촌진흥청(2002)의 농산물소득조사 경영체 중에 간이 재배사, 연 2기작, 폐면을 배지로 이용하는 경영체를 추출하고, 고령경영주를 감안하여 소득수준이 3/4분위에 속한 경영체의 평균 경영성과

를 기준으로, 노동 및 토지를 자가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하여 추정하였다(표 5). 소요자금은 농지가격은 평당 10만원, 시설·장비의 평당(재배상) 소요자금은 15만원으로 설정하여 산출하였다.

노동한계규모 재배상 207평 규모에서의 예상소득은 20,656천원으로 가계비를 충당할 수 있으며, 52백만원 정도의 자본으로 착수가 가능하다. 가계비(14,000천원) 충당규모는 140평이며, 35백만원의 자본이 필요하다. 느타리버섯 전문경영은 노동한계규모가 가계비충당규모보다 크므로 노동한계규모와 비슷한 수준인 재배상 200평 규모 선택이 가능하다.

〈표 5〉 느타리버섯 경영규모 수준별 예상 수익성

구 분		100평수익성	노동한계규모	가계비충당규모 (14,000천원)
시설규모(평)		100	207	140
예 상 수익성 (천원)	조수입	17,785	36,796	24,939
	-수량(kg)	5,057	10,462	7,091
	경영비	7,801	16,140	10,939
	소 득	9,984	20,656	14,000
소요 자금 (천원)	계		51,723	35,056
	농 지		20,689	14,023
	시설·장비		31,034	21,034

4.3.3.3. 느타리버섯 전문경영 실버농업 영농체계 모델

실버농업인의 느타리버섯 전문경영은 노동한계규모가 가계비충당규모보다 크므로 노동한계규모 수준 내의 재배상 200평 규모에서 실버농업 영농체계 모델을 설정하였다(표 6). 소요자본은 50백만원이 필요하고, 예상소득은 20백만원 정도이다. 실버농업인의 느타리버섯 경영에서는 자본이 적게 소요되고 소득도 높으나, 기술난이도가 높은 작목이므로 인근 선도경영체를 벤치마킹하고, 기술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 최근에 개

밭 보급되고 있는 병벼섯 재배는 경노동중심의 재배방법으로 채택이 용이하고, 선도 경영체와 연계하는 사업방안을 모색하면 효율적으로 경영이 가능하다.

〈표 6〉 느타리버섯 전문경영의 실버농업 영농체계 모델

재배규모		간이시설 100평 (재배상 200평)				소요자본 (백만원)				계			50
재배방법		폐면재배 2기작								농지구입			20
										시설·장비			3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작부 체계	---	-○ =	=== =	=■ ■	■ ■	■ ■	---	○	=== =	==■ ■	■ ■	■ ■	
			봄	재배					가을	재배			
생산량	-	-	-	1,466	2,199	1,612	-	-	-	733	2,199	1,905	10,113
소요시간	143	385	193	155	198	127	132	222	361	175	185	169	2,446
경영수지(천원)													
조수입						경영비				소득			
생산량(kg)		금액											
10,113		35,570				15,602				19,968			
주요 경영·기술		- 지역선정: 비교적 평균기온이 낮고, 폭설피해가 적은 지역 - 버섯균사 활착을 위한 배지관리, 접종 후 환경관리 철저 - 발이 후 온도관리, 환기 등 환경관리가 안정생산에 핵심 - 인근 선도농가의 기술·경영을 벤치마킹											

주: ○은 접종, ■은 수확.

4.3.4. 이윤 추구형 실버농업

이윤 추구형 농업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연구팀 내에서 격론이 있었는데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그런 CEO형 농업인의 차별성애에 공감하였다. 도시에서 생활하였던 은퇴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시장마인드가 높은 사람

은 농업 농촌부문에 틈새시장을 찾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기회도 발견할 수 있다. 토지, 노동, 자본뿐만 아니라 지식 자원을 결합하는 경영자는 자기 노동을 기반으로 필요소득을 추구하는 농업인과는 사뭇 다를 것이 기대되고, 이들이 농업 농촌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활력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농업인 가운데서도 경영규모 확대와 기술 혁신 투자와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영주, 벤처농업을 기치로 도전하는 농업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틈새시장을 발견하여 스스로 만족하면서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 다음 두 사례를 보면, 은퇴자의 조그만 비즈니스가 지역에도 활력소가 되고 있다. 건강 악화로 인하여 우연히 농업을 시작한 도시 은퇴자가 건강 회복은 물론 틈새시장을 발견하고 이외의 비즈니스로 발전시킴으로써 가족의 행복을 되찾고 지역 농업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 4. 13.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심포지엄 발표 사례)

〈무안군 나00〉 방송국 광고사업국장이었는데,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건강이 악화하여 2002년 고향으로 귀농하였다. 육체노동을 하면서 건강 회복하였음을 믿으며, 당나귀 사육, 자라양식, 황토 염색 등으로 소득 및 생활에 만족한다. 2007년 매출은 4억원 수준이다.

〈양산군 송00〉 체육교사, 1992년 암 수술 후 시골(청도) 황토집에서 자연식으로 회복한 경험을 살려 1995년부터 양산시 산골에서 성인병 환자들의 자연생활(황토집+자연식) 제공 및 교육 비즈니스를 한다. 연간 매출은 5억원 수준이다. 군청의 요청으로 2006년 영덕군에 사업부지 12천 평을 매입하여 사업 확장 준비중이다.

농업 농촌에서 미래 비전을 갖고 오랜 기간 일궈 온, 경영위기에 부침

을 거듭하면서 발전시키고 있는 거제시의 외도공원, 제주시의 한림공원과 분재원 등의 경영자도 농업 농촌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이윤 추구형 농업인의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진전하면서 소량 다품종 비즈니스가 가능한 농업 농촌에서 도시 은퇴자의 활약이 기대된다. 지금까지 일련의 농업발전 과정을 살펴 보면 “생산자재 준비→생산(재배)→가공→판매”의 여러 부문이 농장경영에서 분리 발전되어 왔는가 하면, 과거 생산과정에서 분화되었던 한 부문이 “생산자재 준비→생산→가공→판매”를 다시 통합하는 수직적 통합 혹은 계열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농업활동의 진화에 도시 은퇴자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기여할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진전과 농촌인구 감소로 인하여 도시 장년층이 은퇴 후 농업 농촌에서 (소)일을 즐기는 실버농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고령사회의 해법은 ‘일하는 노인’에서 찾고 있는데 농촌은 무엇보다도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닌 곳이며 정년이 필요 없는 농업이라는 (소)일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실버농업의 유형을 분류하고, 실버농업에 적합한 작목을 탐색하여 영농체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실버농업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의 방법은 귀농인 408명 대상으로 영농실태를 조사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하였고, 문헌조사와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하여 실버농업의 유형분류 및 적합작목을 탐색하였고 선형계획법과 시산법에 의하여 실버농업 영농체계 모델을 설정하였다.

잠재실버농업인들의 영농의향은 높은 편이었고 대부분 채소·정원·화

초 가꾸기 등 취미여가 수준의 농사를 희망하였으나 일부는 적극적인 소득추구를 희망하였다. 실버농업인들은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고 있었고, 경영규모를 볼 때 취미여가 또는 자급자족형이 많으나 소득추구형도 있었다. 도시 은퇴자의 거주지 및 영농목적에 따라 도시거주 취미여가농업과 소득추구 농업, 농촌이주 취미여가농업과 소득추구 농업의 14개 유형을 분류하였다. 소규모의 취미·여가형 실버농업 작목으로서는 식용 농축산물 외의 다양한 식물과 동물도 가능하다. 자급자족형 실버농업 작목은 주로 식용 농산물이 적당하고 0.7ha 수준에서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다. 보충소득 추구형 실버농업에는 필요소득과 입지에 맞는 작목을 선택하고 경영위험 관리와 경쟁력 향상을 권장한다. 은퇴자 부부 2인의 노동력으로 가계비 충족이 가능한 느타리버섯 전문 영농체계 모델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한편으로 시장마인드가 강한 은퇴자가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실버농업을 시도하면, 농업 농촌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도시 은퇴자의 농업종사와 농촌이주에 대한 의향은 높은 편이고, 영농목적은 주로 취미여가농업이며 소득추구농업이 필요한 은퇴자도 있다. 은퇴자는 도시에 계속 거주하거나 농촌에 이주하여 실버농업이 가능하다. 취미여가용 작목은 매우 다양하며,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주로 식품용 작목이 선택된다. 소득추구를 위해서는 입지에 적합한 작목을 선택하여야 하고, 심신기능과 체력이 저하한 고령 은퇴자로서는 작업체계의 생력화에 유의하고 경영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 강경하. (2005). 실버농업 연구현황과 개발과제. 2005 심포지엄 자료집: 장수사회 농업 농촌의 가치조명 (pp. 27-49). 수원: 농촌진흥청.
- 강대구, 김정남, 김민수, 이웅, & 변규식. (2006).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서울: 농림부.
- 강진구, & 박승용. (2004). 도시은퇴자의 농업경영모델 구상.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업인복지과 세미나(미간행 자료).
- 김경수, 김정란, 김효철, 이경숙, & 박공주. (2006). 농작업 안전관리 핸드북 8: 고령농업인의 작업안전관리. 수원: 농촌진흥청.
- 김동일. (2001). 장수시대의 도래와 도시 퇴직자의 농촌 정착 가능성. 제2차 도·농 녹색교류 심포지엄 자료집 (pp. 3~12).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김성수, 정지웅, 임형백, 고운비, 김정태, & 이성. (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 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53~65.
- 노재선, 임상수, 김현일, 정우석, 김은동, 진지연, & 조승현. (2007). 실버농업 경영 분석 및 경영전략 개발. 실버농업 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제3차년도 완결보고서 (pp. 229-313). 수원: 농촌진흥청.
- 농림부, & 농촌정보문화센터. (2006). 100% 도시총각, 농사꾼으로 거듭나기. 농업 경영 혁신 시리즈 3.
- 농촌진흥청. (2002). 작목별 작업단계별 노동투하시간. 수원: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2002; 2003). 농축산물소득자료. 수원: 농촌진흥청.
- 류강선. (2003). 실버농업의 모델 설정. 노령화 시대를 대비한 실버농업 개발 심포 지엄 자료집 (pp. 9-22). 수원: 농촌진흥청.
- 박공주, 윤순덕, & 강경하. (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농촌계획, 12(4), 63-76.
- 박상철. (2002). 한국 백세인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송미령, & 성주인. (2006). 도시민의 농촌지향 수요와 농촌의 미래상. 2006 농업전 망.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동만. (1996). 농경지 시각적 영향 평가-농촌의 주거환경 평가-.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공익적 기능 평가. 수원: 농촌진흥청.

- 오대민, & 최영애. (2006). *자연과의 만남으로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도시농업*. 학지사.
- 오세익. (200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수원: 농촌진흥청.
- 요시다 타로(저). 안철환(역). (2004).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서울: 들녘.
- 윤순덕, & 한경혜. (2004). 생산적 활동과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4(2), 57~77.
- 윤순덕, 박공주, & 강경하. (2005). 노년기 농업노동의 사회복지비용 절감효과 분석. *한국노년학*, 25(2), 109~126.
- 윤순덕, 강경하, 박공주, & 이정화. (2005).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5(3), 139-153.
- 윤순덕, & 박공주. (2006). 도시민의 은퇴 후 농촌정주에 대한 수요분석. *농촌계획*, 12(2), 37-47.
- 윤순덕, & 박공주. (2007). 은퇴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련성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3), 455-467.
- 이광석. (1997). 도시민의 휴가지 및 주거지로서의 농촌선택 성향 분석. *농업경제연구*, 38(1), 35-46.
- 이상영, 김은자, 김영, 강경하, & 신용광. (2005). *농촌의 공익기능을 활용한 테마농원 활성화 방안 연구*. 수원: 농촌진흥청.
- 이은미. (2002).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Issue Paper 2002.12.13*. 삼성경제연구소.
- 장현숙 등 21인. (2005).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서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전국귀농운동본부. (2006). *자연을 그리워하는 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귀농길잡이*. 서울: 소나무.
- 정동우. (2005). *한 달에 200만원으로 해외에서 귀족으로 사는 법*. 서울: 이지북.
- 정철영. (2000). IMF에 따른 귀농희망 실업자를 위한 영농교육훈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1), 1~26.
- 최혜경, & 정순희. (2001). *노인과 실버산업*. 서울: 도서출판 동인.
- 통계청.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2006a).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06b).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6.5).

통계청. (2007). 2006년 농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內閣府. (2004). 高齢社會白書. 일본 內閣府.

丸杉孝之助. (1990). シルバー農園のすすめ: 50代からの本格人生プラン. 農文協.

http://www.nso.go.kr/cgi-bin/sws_999.cgi